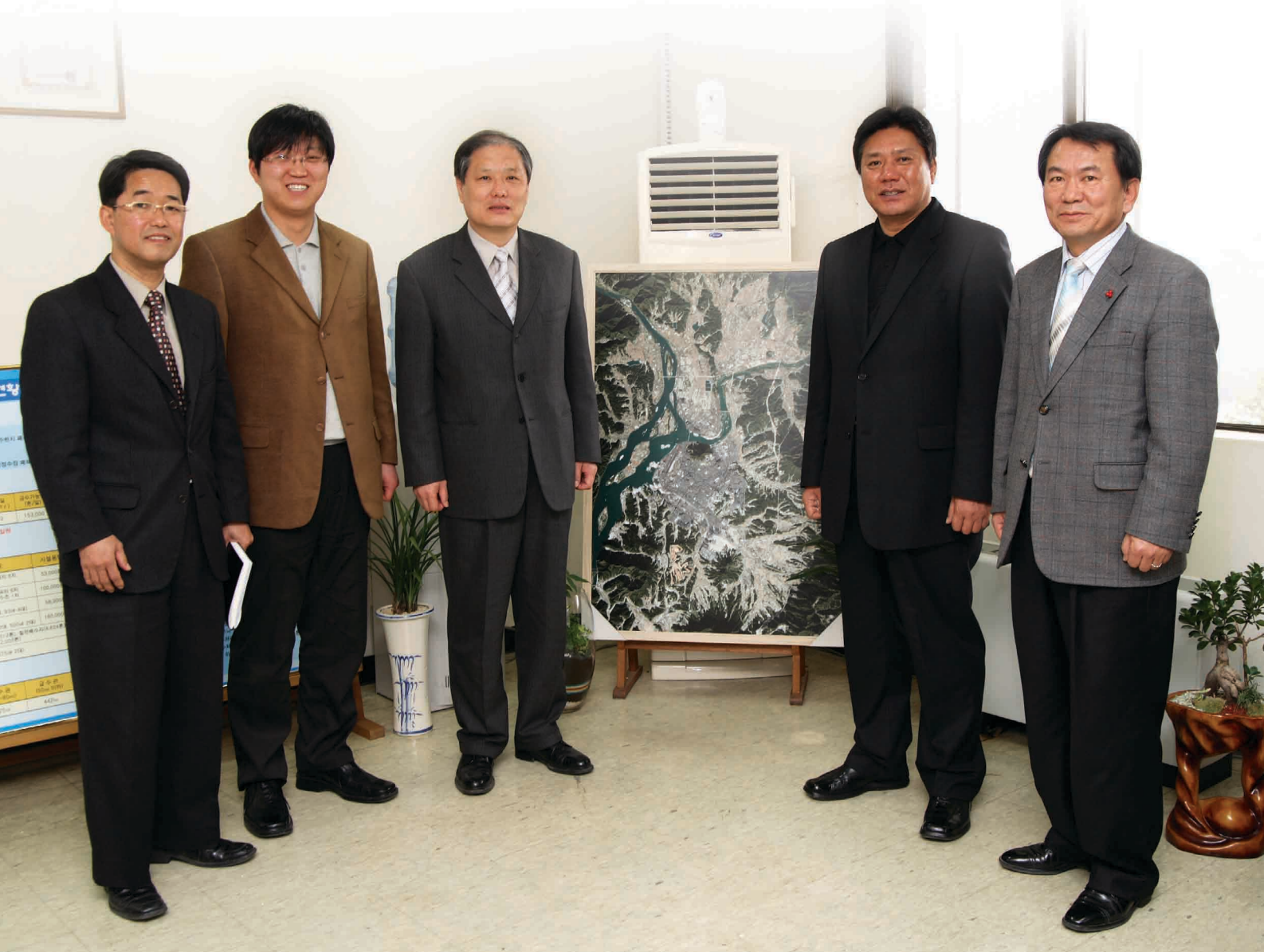


“힘 있는 수부도시” 춘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람들

강원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

도시는 강과 호수 등 풍부한 수자원을 중심으로 발전한다. 더불어 이러한 도시의 기반을 이루는 수자원을 지켜내고 가꿔 나가야 할 책임도 뒤따른다. '호반의 도시' 라는 춘천의 명성을 지켜내기 위해, 오늘도 상하수도 시설 및 행정 서비스의 선진화에 열정과 정성을 아낌없이 쏟아 붓고 있는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 사람들을 만나 보았다.



춘천을 대신하는 이름. 바로 '호반의 도시'이다. 춘천의 하천은 분지를 중심으로 북동쪽에서 소양강, 북서쪽에서 북한강이 흘러 내려오다 분지 안에서 합쳐져 다시 남서쪽으로 흐르다 홍천군과의 경계선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홍천강과 합류한다. 시내에는 소양호, 춘천호, 의암호가 있어 하류의 홍수 조절과 수력발전, 관광지 등의 몫을 한다.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물의 고장에 근무하는 만큼 수자원의 활용과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다.

사업소에 방문하던 날, 전날에 일어난 갑작스런 도수관 파열 사고로 11시간가량 밤샘 작업을 한 탓인지 모두들 피곤해 보였다. 그렇다고 업무에 소홀할 수는 없는 노릇. 각자 담당 업무를 처리하느라 분주했다. 한편에선 소장님과 담당 직원들이 춘천시의 물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다. 사업소 직원들은 갑작스런 사고로 지역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 가장 힘들지만, 혼신의 노력을 다해 복구하여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맑고 깨끗한 춘천 만들기

춘천시는 강원도 최초로 도시의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호반의 도시에 걸맞은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수도권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0년 1월부터 7만 5천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고 있다. 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증가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시설을 확장하여 운영 중이며, 농촌 지역 생활하수 처리를 위하여 집단 주거부락 단위로 마을하

수도 2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2년 8월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부분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총 처리용량 15만톤 처리 시설 중 10만톤은 고도처리시설이 아닌데도 2004년부터 대폭 강화된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급격한 조류발생이 있었으며, 춘천시 남산면 일원에서 일어난 돌풍과 낙뢰로 산림과 주택이 초도화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춘천시에서는 이러한 자연이변으로 발생하는 갖가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용산정수장 내에 조류경보기와 활성탄 투입 시설을 설치하고 소양정수장의 9개소에 낙뢰보호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 한다.

현재 춘천의 도시 지역 외에 농촌 지역은 부락 단위로 마을 상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마을 상수도 시설은 자연 재해인 가뭄과 한파 등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지역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오지마을까지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여러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확장으로 근교 농촌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전원 생활 선호에 따라 집단 주거지역별로 발생하는 농촌 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3개소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이다.

첫 번째 지역은 수도권 대학생들의 MT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강촌지역으로, 일일 4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강촌하수종말처리장이 200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한창 시운전 중이다.

“춘천시는 앞으로 도시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에 그로 인한 철저한 대비가 지금부터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은 도시의 기반을 이루고 도시 생활을 보다 쾌적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춘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해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소양정수장 전경

두 번째 지역은 서면지역으로, 200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서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다. 마지막은 신북지역으로 일일 3천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올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이렇듯 최근의 도시 성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농촌 지역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춘천시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맑고 깨끗한 춘천을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감으로 사업소 직원들의 열정에 찬 업무 모습속에 투영되고 있었다.

'명품도시'를 위한 준비

춘천시는 향후 5년 내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교통망의 확충이다. 현재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가 착공되었으며, 경춘선 복선 전철은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도시 교통망의 확대로 2020년경이면 도시인구가 5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도시 성장의 기틀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준비에 가장 큰 틀이 바로 춘천시의

G5프로젝트이다.

G5프로젝트는 2010년까지 춘천시를 '명품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로 총 5가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 그중 G2~G5프로젝트는 지난 2005년 9월 국제현상공모를 추진하여 2006년 3월 설계공모 당선 작품을 선정하고, 2007년부터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사업소 직원들은 춘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기대와 함께 사업소의 역할에 대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자신에 찬 의지를 드러냈다.

“춘천은 도시 성장에 있어 중대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맞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시 발전에 필요한 공간적, 기능적,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여러 사업들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진해 소장은 사업소 직원들에 대해 큰 신뢰를 나타내며 앞으로의 변화에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의 상수도 행정은 192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역사의 연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애쓰고 있다.



춘천시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장선상에서 춘천시는 지속적인 시설 확충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취·정수시설 각 2개소, 배수지 5개소, 가압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수장 증설 8만톤, 배수지 5만 1천톤, 배수관로 7.2Km, 가압장 1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하수도 분야에서도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춘천의 중심을 관통하는 공지천의 수질 개선으로 싱싱한 물고기와 백로가 서식하게 되면서 시민들이 찾는 친환경 공간으로 바뀌는 등 생활환경도 많이 개선되었다.

또한 2005년 국가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시행한 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상위권인 4위에 진입하여 경영에서도 상당히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모두 사업소 구성원들의 줄기찬 노력에 의한 결과임에 한치의 의구심이 없다.

직원들의 끊임없는 열정으로 친환경 관광도시로 성장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앞으로도 할 일이 참 많다. 2020년 인구 50만명의 도시로 성장하는 데 대비하여 깨끗한 호반의 도시, 아시아의 제네바, 세계 제1의 관광·레저·문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돗물은 도시의 기반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러한 기반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퇴보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직원들은 앞으로 미래의 발전과 도시 성장에 대비하고 더불어 G5프로젝트 등 춘천이 호반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오늘도 강한 의지와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옛말에 백 번 잘 해도 한 번 잘못 하면 백번 잘 한 것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수돗물은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더욱 그러하며, 이를 생산하고 처리하는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야말로 그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신 해소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하고 친환경적인 하수처리 및 하수도 확충을 위하여, 오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 모든 직원들은 밤낮없이 뛰고 또 땀다. 진정 그들이 춘천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하는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들이 아닐까 싶다. @